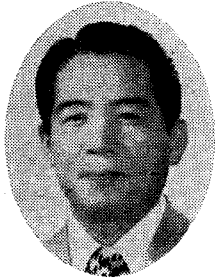


特協의 役割과 進路



文 基 祥
(商工部 特許局長)

韓國特許協會는 中東戰爭을 계기로 世界的인 石油波動과 인플레이션으로 國際經濟가 격심한 動搖 속에 陣痛을 겪고 있는 위에 對內的으로는 韓日工業所有權 保護協定の 發效를 앞두고 정부나 業界가 다같이 이에 對應해 나갈 態勢를 신속히 갖추어야 할 증대한 時點인 1973년 10월 18일 協會가 創立되었음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돌이켜 보건데 世界的으로 特許制度는 이미 16세기 英國을 그 嚆矢로 하여 歐美, 日本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舊韓末 때에 運用되어 왔으나 국가산업발전에 이용되기는 政府 수립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몇해에 지나지 않아 그 歷史가 日淺하다 할 수 있겠다.

그러나 60年代에서 70年代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經濟는 工業立國과 輸出振興으로 나져왔으며 80年代의 豊饒한 社會로 跳躍하기 위한 굳건한 土臺를 構築하고 있는 이 時點에서 우리 企業人들은 從來의 資金管理나 마아케팅 중심의 經營戰略에서 벗어나 技術革新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주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公業소유권을 중심으로 한 自生技術開發과 先進技術活用을 통하여 새 商品을 개발하고 原價를 절감하여 海外市場에 내놓을 수 있는 기반을 신속히 構築하는 것이 기업이 취해야 할 急先務라 하겠다.

그러므로 技術革新과 特許管理는 상호 불가분의 關係로서 經營戰略의 核心이 되고 있는 만큼 企業에서는 公業소유권 制度를 재빨리 導入하여

會社內에 특허관리를 전달할 수 있는 組織과 要員의 확보, 自社에 필요한 특허정보의 수집, 合理的인 管理運營 등으로 品質管理, 原價節減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時代性에 副應하여 다행히도 經濟界가 중심이 되어 特許協會를 設立하게 되었고, 2년 이 গত지나 오늘에 이르러 141개 회원을 包容하여 다양한 事業活動을 전개함으로써 名實相符한 經濟團體로서 발전하고 있음은 公業소유권 제도운동에 一翼을 담당하고 있는 本人으로서도 든든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하겠다.

그동안 特許協會는 公業소유권제도의 효율적 運用과 發明創案 및 實用化를 적극 誘導함으로써 協會의 성격과 설립목적을 실현하여왔다 하겠다. 특히 政府에 대하여는 公業소유권의 制度改善, 行政의 能率化 방안을 提示·促求하는 한편, 회원에게는 公業소유권 企業내관리체제의 확립, 公業소유권 정보의 신속한 보급에 역점을 두어왔다 하겠다.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急變하는 公業소유권의 국제추세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政策方向의 제시와 全國民을 대상으로 한 公業소유권 制度의 認識을 提高시키는데 特協이 크게 寄與한 사실을 빼놓을 수 없다.

오늘날 日本이 불과 몇년 동안에 先進工業國으로 跳躍할 수 있었던 것도 政府와 업계가 다같이 公業소유권 制度를 적극 도입 활용한 데 있는 것이다. 일본의 특허제도는 90年의 歷史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敗戰後 최근 수년 동안에

集中的으로 모든 産業分野에서 公業소유권을 바탕으로 한 技術革新으로 新製品을 開發하여 海外市場에 내놓음으로써 經濟成長을 持續하여 왔다.

이것은 制度를 運用하는 일본정부나 기업의 不斷한 노력의 결실이라 보겠으나 여기에는 무엇보다 制度運用의 媒體가 되는 日本 發明協會·特許協會·特許情報 센터 등 公業소유권 有關團體의 誘導 및 助長活動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들 團體의 활동은 오늘날 우리의 特許協會를 비롯한 有關機關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特許公報를 비롯한 각종 技術情報資料의 제공, 情報의 調查檢索, 要員養成을 위한 研修뿐만 아니라 全국민의 發明思想을 昂揚시키고 特許制度를 인식시키는 發明考案品の 蒐集展示, 表彰事業 등을 展開하여 底邊을 擴大強化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特協이 이미 發足하여 諸機能을 圓滑히 수행하고 있는 데다 정부에서나 企業에서 그동안의 活動狀況으로 보아 큰 기대를 모으고 銳意 注視하고 있는 만큼 해를 거듭할수록 맡은 바 責務는 커진다고 할 것이다.

特協이 지난 2년 동안 會員企業이나 國內主要企業 特許管理業務를 質量面에서 提高시켜 온 것은 20회에 가까운 公業소유권 연수강좌를 통해 기업내 담당요원을 양성공급한 것을 기화로 하여 100여 업체에서 專擔機構를 설치하게 되었고 이들 要員은 職務發明으로 開發된 新技術을 出願하는 경향이 늘어남으로써 차츰 企業이 發

明의 産室化가 되어가고 있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企業活動에서 필수로 하는 公業소유권 각종 公報와 정보자료를 繼續 신속히 제공하여 技術研究開發에 도움을 주는 한편, 不實權利防止를 위한 公衆審査 參與를 促進시켜 왔기 때문이다.

또한 公業소유권 國際化 趨勢에 對處하여 특허행정 的 보완을 수시 建議하여 정책자료에 반영케 함으로써 정부와 기업간의 橋梁的 역할을 다하여 온 데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公業소유권 制度가 아직도 基盤과 環境을 다져나가는 草創期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特協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산적되어 있다 하겠으며, 經濟發展과 더불어 公業소유권 制度는 더 앞서서 改善·活用되어야 한다는 當爲性 때문에 예기치 못하는 試鍊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정부로서도 그동안 未備한 특허행정태세를 補充코자 현실에 맞는 關係法の 改正, 機構의 강화, 審査, 審判官의 質的向上을 위한 資格制度 實施, 研修의 義務化 등 필요한 조치를 斷行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企業活動에서 切實하고 쓸모 있는 內外特許情報를 풍부하고 신속 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資料室의 擴大強化와 아울러 機械化에 充實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끝으로 오늘의 特許協會가 이룩하여 놓은 많은 업적을 거둬삼아 국내기업은 물론 온 국민들에게 公業소유권의 重要性을 일깨워주는 데 더한층 盡力해 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特協의 役割

本會는 工業所有權制度의 效率的 運用을 통하여 國內技術開發에 先導的 役割을 한다.

- 一. 工業所有權情報의 媒體
- 一. 新技術開發役軍의 養成
- 一. 國內外技術交流의 窓口化
- 一. 制度改善 方向의 提示
- 一. 工業所有權 運用效率化誘導
- 一. 發明獎勵 및 實用化促進